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2009년 연금운용실적,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

-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(GPIF, 이하 일본 공적연금)의 2009년도 운용실적에 따르면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익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(운용자산 약 123조엔)의 2009년도 운용자산 총수익 규모는 9조 1,850엔으로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한 2001년 이후 사상 최대 수익을 시현함.
  -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전년도 9조 6,670억엔 손실액을 거의 회복한 수치이며, 운용수익률도 전년도 -10.03%에서 9.55%로 나타나 연금재정운용에 필요한 수익률(임금상승률+1.1%) 및 최근 7년간 운용수익률 2.82%를 크게 상회하며 이른바 V자형 회복을 나타냄.
  
- 공적연금의 자산구성은 국내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,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신흥국가에 투자한 것이 결과적으로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짐.
  - 사상 최대의 수익을 시현한 데에는 글로벌 증시 호조에 힘입어 해외주식 투자 부문이 46.11%의 고수익률을 거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, 국내주식 및 채권 부문에서 각각 29.4%, 1.98%의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주요 요인임.
  - 구성비중은 국내채권 68%(전년도 67%), 국내주식 12%(12%), 해외주식 11%(10%), 해외채권 8%(11%) 및 기타 단기자산 1%(-)로 나타남.
  - 이와 같은 비중변화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내채권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, 그 동안 해외 주식투자대상 국가를 선진 22개국으로 한정하던 것을 중국, 인도와 같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가들로 확대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음.

(아사히신문, 7/7)